

1.

[정답] ②

[해설]

이 사람에게 커피 1잔은 녹차 1.5잔과 가치가 같다. 그런데 커피 1잔 살 돈이면 녹차 2잔을 살 수 있다. 커피 사면 손해니 녹차만 사게 된다. (커피의 한계대체율이 1.5, 상대가격이 2이므로 이 사람한테는 커피가 비싼 것이고 완전 대체재 관계에서는싼 쪽만 소비하는 결과가 나온다.)

2.

[정답] ④

[해설]

원점에 대해 볼록하므로 대체효과는 X 증가, Y 감소이다. 그런데 결과적으로 Y가 불변이라면 소득효과로 Y 증가여야 한다. X의 소득효과는 판단할 수 없다. 예를 들어서 X가 소득효과로는 변하지 않을 수도 있다.

3.

[정답] ③

[해설]

- ① 저축자인지 차입자인지에 따라 다르다.
- ② 증가시킨다.
- ④ 판단 불가

4.

[정답] ④

[해설]

각 지출액을 보면 다음과 같다.

| | 소비 = (1, 6) | 소비 = (7, 2) |
|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|
| 가격 = (2, 10) | 62 | 34 |
| 가격 = (12, 4) | 36 | 92 |

처음 가격에선 둘 다 살 수 있었는데 (1, 6)을 골랐다. 이는 이걸 선호한다는 뜻이다. 그런데 다음 가격에서도 둘 다 살 수 있었는데 (7, 2)로 달라졌다. 이는 일관성이 없는 선택이다. 약공리가 충족된다면 다음 가격에서 (7, 2)를 고른 이유는 (1, 6)을 살 수 없었기 때문이어야 한다.

5.

[정답] ①

[해설]

경기자 1은 다음과 같이 행동한다. $0.5 \cdot 8e_1e_2 - 2e_1$ 을 극대화하는 e_1 을 찾기 위해 e_1 로 미분하면 $4e_2 - 2$ 가 나온다. 이것이 0보다 크면 최적 e_1 은 1이고 0보다 작으면 0이다. 0보다 크다는 것은 e_1 을 늘릴수록 이득이라는 뜻이고 0보다 작다는 것은 e_1 을 줄일수록 이득이기 때문이다. 따라서 e_2 가 $1/2$ 보다 크면 경기자 1은 $e_1 = 1$ 을 선택하고 e_2 가 $1/2$ 보다 작으면 $e_1 = 0$ 을 선택한다. 이는 경기자 2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. 결국 균형은 (0, 0), (1/2, 1/2), (1, 1) 3개로 나타난다.

6.

[정답] ③

[해설]

한계생산물가치가 요소 가격과 같아지도록 하는 것이 최적이다.

$$4 \cdot 6x_1^{-0.5} = 1 \rightarrow 24 = x_1^{(0.5)}$$

$$4 \cdot 2x_2^{-0.5} = 2 \rightarrow 4 = x_2^{(0.5)}$$

$$\text{생산량은 } 12x_1^{(0.5)} + 4x_2^{(0.5)} = 12 \cdot 24 + 4 \cdot 4 = 304$$

7.

[정답] ④

[해설]

초과수요는 수요에서 공급을 빼면 된다. $960 - 7p - (160 + 3p) = 800 - 10p = 450$

8.

[정답] ①

[해설]

고정비용+가변비용인데 고정비용은 4,000이다. 가변비용은 생산함수를 변형하면 나온다.

$$y = 4x^{(0.5)} \rightarrow x = y^2 / 16 \text{ 따라서 가변비용은 } 4,000x = 250y^2$$

9.

[정답] ②

[해설]

콕-더글라스 함수의 경우 지수의 합이 1보다 크면 규모수익체증, 1이면 불변, 1보다 작으면 체감이다.

한계생산은 각 요소의 지수만 보면 된다. 1보다 크면 한계생산체증, 1이면 불변, 1보다 작으면 체감이다.

10.

[정답] ②

[해설]

$2l+k < l+4k$ 이면 $y=2l+k$, 반대의 경우 $y=l+4k$ 그러니까 $k=1/3$ 이 선을 기준으로 기울기가 달라진다.

① 일정하지 않다.

③ $y=2l+k$ 선 상의 모든 점이 최적이다.

④ 1, 5일 때는 생산량이 7이고 4, 1일 때는 생산량이 8이므로 다른 곡선 위에 있다.

11.

[정답] ①

[해설]

기대효용은 확률을 가중치로 한 효용의 평균이다. $0.9 \cdot \sqrt{16,000,000} + 0.1 \cdot \sqrt{1,000,000} = 3,700$

12.

[정답] ②

[해설]

현재 생산량은 PMC와 수요곡선의 교점에서 결정된다. 생산량은 80이다. 한편 최적 생산량은 SMC와 수요곡선의 교점에서 결정된다. 최적 생산량은 70이다. 따라서 후생손실은 $(80-70) \cdot 40 / 2 = 200$ 이다.

13.

[정답] ①

[해설]

달러 수요가 늘어나니 환율이 오른다. 나머지는 환율이 내려간다.

14.

[정답] ④

[해설]

① 합리적 기대 가정하는 모형

② 합리적 기대와 항상소득가설을 결합한 모형

③ 이 모형에 따르면 개인은 지금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가지고 앞으로의 소득흐름을 예상하고 그에 따라 항상소득을 계산, 이를 소비에 쓰게 된다. 따라서 소비가 변하기 위해서는 그 상황이 예상하지 못한 것 이어야 된다.

15.

[정답] ①

[해설]

기억효과가 있으면 장기에서도 필립스곡선이 우하향한다. 이 경우 인플레이션 줄이기 위해서는 실업이 생기므로 고통이 없을 수 없게 된다.

16.

[정답] ①

[해설]

② 초과공급

③ 하락

④ 증가

17.

[정답] ②

[해설]

① 크다.

③ 수직이다.

④ 물가 변화는 총수요곡선 상에서의 이동이다.

18.

[정답] ②

[해설]

① 하락

③ 공급곡선이 우측 이동

④ 국민저축은 덜 증가한다.

19.

[정답] ③

[해설]

- ① 인정한다.
- ② 조정실패는 새 케인즈학파 쪽 모형
- ④ 정당화되지 않는다.

20.

[정답] ③

[해설]

감세 대신 국채 발행하는 경우 민간이 미래의 증세를 예상하여 현재 소비 대신 저축을 한다는 것이 대등정리의 주요 내용 중 하나이므로 국공채를 순자산으로 보지 않는다.

21.

[정답] ②

[해설]

자본 추가에 따라 실질이윤이 0일 때 정상상태가 된다. 계산은 생략

22.

[정답] ③

[해설]

토빈 q 이론은 q가 1보다 큰지 작은지에 따라 투자가 달라진다는 것이지 항상 1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.

23.

[정답] ①

[해설]

- ② 합리적 기대
- ③ 명목임금 경직성 모형
- ④ 새 케인즈학파

24.

[정답] ④

[해설]

π 계수를 보면 1.6이다. 따라서 인플레이션율이 1% 상승하면 명목이자율은 1.6%p 상승한다.

25.

[정답] ③

[해설]

구매력평가설을 기초로 하여 장기에 적합하다.